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제3214호 www.metroseoul.co.kr

강정호 2루타 주전굳히기

지난해 4월 국비 보조금 편취사건으로 기소된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업체 중 한 곳의 제2 공장. 이 업체 관계자는 "100억여원을 들여 이 공장을 건설하여 40여명의 직원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희망에 부풀어있었는데, 공사 일부를 무자격업체에 하도급 줬다는 게 빌미가 돼 국비 보조금 편취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이 공장은 가동도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청권 신재생에너지업계 줄도산 위기

국비보조금 편취 혐의로 무더기 기소 · 대법원 재판 진행중
"부분 하도급도 무리하게 처벌— 재판도 부실" 억울함 호소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대전·충청권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유망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들은 지열 냉난방설비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만 하고 실제 시공은 무자격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 전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억울하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강력 반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소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이들 업체의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신청자격을 정지시켰다.

이 탓에 해당 업체들은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매출 급감과 함께 줄 도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12일 검찰과 법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주로 대전 충청권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14곳이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의해 총 40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 등은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 전원 상고했다.

◆ **무자격 업체가 국비 보조금 타려다 문제 발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가 설치를 원하면 사공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인 척 주택소유자들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기소 당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업체에서 자격업체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무자격업체가 사공하였음에도 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총 40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급심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 **일부업체 "부분 하도급만 줬는데도 국비 편취죄로 기소"**

기소 업체 중 명의대여 사실은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은 물론 애프터서비스(AS)까지 했는데, 지열펌프를 설치하는 공사 일부를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 이런 단순 하도급이 왜 국비 편취죄로 재판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상급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0% 하도급의 경우만 규제대상이며, 일부만 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공단에 통보했는데도 공단이 이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내용과 판결을 근거로 참여제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사의 상당부분이 하도급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하도급 규제 관련 규정도 2009년 시행 당시에는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가 2012년 개정판에서는 "참여 시공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직접관리 해야 하고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다.

단순 설치 등 일부 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단도 알고 '직접관리'가 되는 한도에서는 일부 하도급은 허용한다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지로 폐업위기"**

기소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지 처분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단은 업체들이 기소된 직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국비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정지시켜버렸다. 해당 업체들의 반발로 다시 되돌리기는 했지만 이미 '사기업체'로 낙인이 찍히고 영업중단 여파로 신규 수주가 힘들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매출 급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대덕연구단지에 있던 본사건물을 매각하고 인력도 줄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섣불리 영업을 봉쇄하면서 유망했던 중소기업들마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열펌프를 생산하고 설치 공사만 하도급을 줬는데, 이런 일부 하도급은 에너지관리공단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1·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무자격업체에 100% 하도급하거나 명의만 빌려준 다른 업체와 동일시 하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천안함 땐 종적 놓치고 '추적가능' 호언장담

북한 SLBM 잠수함 추적 가능한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 잠수함 동향 파악에 실패했던 군이 5년이 지나 '추적 가능'을 호언장담하고 나섰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방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면 열원을 탐지할 수 있다"며 "북한 잠수함의 위치와 활동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은 일단 수중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잠수함기지를 출발해 이동하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여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기 힘든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은 잠수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이 입수한 '00 00000 북한 서해 잠수함 동향'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3월 26일 전후 군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잠수정의 동향 파악에 실패했다. 자료에는 북한의 잠수정 0척과 공작모선 0척이 3월 24일과 25일 이틀 간 감시체계에서 사라져 이튿날 '미식별'로 표시됐다. 또 사고 당일인 26일에는 '영상질 불량'으로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상어급과 로미오급의 00척은 24일부터 27일까지 동향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북한 잠수함 동향 파악은 미군이 24시간 운용하는 군사위성 자료를 통해 이뤄진다. 기상 악화가 영상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합참 당시 정보분석단장은 "이번에도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한 것은 식별했으나 설마 우리 해역까지 침범해 도발을 할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만 해명했을 뿐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북한 SLBM 시설 타격할 '해성 3' 미사일 국산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 3'가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해성 3의 사거리는 1000여km로, 유사시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 시스템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방부 제공

구분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illegible] 척	미식별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식별
로미오급 ○척 상어급 ○척 계 ○○척	식별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영상질 불량	식별
잠수정 ○척 공작모선 ○척 계 ○척	식별	미식별	미식별	영상질 불량	미식별	미식별
[illegible] ○척 공작모선 ○척 계 ○척	식별	식별	식별	영상질 불량	?	?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 ○○○○ 북한 서해 잠수함 동향' 자료를 재구성한 표. /[illegible] 제공

이언주의 '눈물의 호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뉴시스

네팔 17일 만에 또 7.4 강진… 주민들 공포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참사가 발생한 네팔에서 12일(현지시간) 17일 만에 다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네팔은 또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C)에 따르면 강진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인근인 네팔 북동부 고산마을 남체바자르에서 서쪽으로 68km 떨어진 지하 19km 깊이에서 발생했다.

USGS는 최초 지진 규모를 7.1이라고 발표했다가 7.4로 고쳐 발표했다. 또 진원지 깊이 역시 지하 18km에서 지하 19km로 고쳤다.

이번 강진은 인도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인도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은 지난 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8000명이 넘는다. 대참사 이후에도 네팔에서는 지난 10일 규모 3~4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여진이 발생해 불안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송병형기자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1968억 낙찰… 역대 최고

피카소의 1955년작 '알제의 여인들'이 역대 최고가인 1억7936만5000달러(1968억1721만원)에 낙찰돼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알제의 여인들'은 11일(현지시간) 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당초 추정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당초 추정가는 1억4000만 달러(약 1천536억원)였으나 경매 시작 후 11분간의 치열한 전화 경합 끝에 추정가를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가 1억4240만 달러(1542억5552만원)로 최고가 기록을 지키고 있었다.

피카소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동명 작품을 재해석해 입체파 화법으로 '알제의 여인들'을 그렸다.

역대 최고가에 낙찰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연합뉴스

역대 경매에서 피카소의 작품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은 5위, '파이프를 든 소년'은 7위,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 마르'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상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가 1억4128만5900 달러에 낙찰돼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와 '전차'는 각각 역대 3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하겠다"

김무성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 발언에 "금시초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법인세율 인상 반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외의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사안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뒷받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중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심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이나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9일 한 매체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내대표 재임부터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서이기자 rachsun217@metroseoul.co.kr

연말정산 환급 대란 간신히 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장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환급 대란을 우려한 바 있다. 하루를 넘겼지만 간신히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서이기자 rachsun217@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도중 "참 …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약 16초 정도 침묵했다. 이후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연합뉴스

사분오열 새정치연합 '탈당 현실화' 위기

지도부 내부 충돌로 분열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3선의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갈 발언'으로 당의 위기를 초래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정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 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혁신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새정치연합 당원 50여명은 "(공갈 발언으로) 최고위원과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석대성기자 bsl@

'父 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15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가 15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일명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김씨는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광주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번에 열리는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측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김씨도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는 서면으로 심리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때도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자체가 재판부가 김신혜 사건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단은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시법 절차적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단은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반인권적 수사를 했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률구조단은 당시 수사 경찰들로부터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자인 받고 그 중 한 명에게 자인서를 작성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에는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또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에게는 피해자가 숨지기 1~2시간 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과 상충된다.

이외에도 재심 청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 등을 수집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률구조단은 "경찰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 부검의의 감정서 등 유의미한 증거들을 통해 재심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반영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檢, 이완구 전 총리 내일 소환

이 전 총리 핵심 측근 김모 비서관 분리 고강도 조사 계획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 리스트에 오른 여권 유력 인사 8명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두 번째다.

1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는지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은행원지 성 전 회장 측근 진술 등을 확보했다.

/변아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檢, 석유공사 압수수색… 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 자문사 메릴린치도 수색

검찰이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로 숨고르기에 나섰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검사·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6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인수했다.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 조건을 바꿔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석유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조2446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수 자문사는 메릴린치였다.

인수 후 부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변아란기자

'포스코플랜텍 자금횡령' 유영E&L 대표 구속영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란 공사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영E&L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2014년 전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 922억원(7190만 유로) 가운데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가 이란 현지에 세운 법인인 'SIGK' 계좌에 잔고가 130여억원밖에 남지 않았고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사라진 자금도 있다. 확인되는대로 횡령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이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석유공사와 직접 거래를 피하려고 세화엠피와 유영E&L,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자금을 관리했다. 2010~2012년 이란에서 올린 매출 3000억원가량 가운데 수금하지 못한 돈이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유영E&L로부터 보관금 현황과 현지은행 계좌 잔고증명서를 분기마다 제출받았으나 기록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아란기자

식약처 "이엽우피소 문제 없다"… 국민안전 뒷전

'가짜 백수오' 파문에도 독성검사 안해
檢, 내츄럴엔도텍 '中산 백수오' 조사 착수

가짜 백수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처장 김승희)는 이엽우피소가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식약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서북농림과학대 연구진이 이엽우피소를 사료에 20% 섞어 쥐에게 일주일 간 먹였더니 절반이 죽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북식물학보에 2007년 게재된 '30종류 식물의 살서 활성 연구 논문'은 담배, 피마자잎, 고삼 등 여러개의 식물종에서 천연 살서제(쥐약)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에 이엽우피소는 살서제의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논문을 이엽우피소의 독성평가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논문의 시험방법은 국제기준의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과 다르다고 사용된 시료의 종류도 명확하지 않으며 결과에서도 용량-반응관계, 독성표적장기와 독성기전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논문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성연구과 정승태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논문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설명에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먼저 10여 가지의 독성검사를 한 후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독성을 확실할 수 없다고 해서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김지호 이사는 또 파와 양파처럼 이엽우피소와 백수오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강조했다. 이엽우피소의 한약재 사용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이엽우피소는 약재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수오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를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중국에서는 혼용돼 쓰이기 때문에 오는 염수한 원료가 이엽우피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에 이엽우피소도 섞인 게 드러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검찰 조사결과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정윤기자 ohsun@metroseoul.co.kr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25개 자치구, 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서울시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번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1%를 기록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다. 사실상 각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난으로 대다수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5개 구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다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하락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1.8%에서 지난해 33.6%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급락한 배경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배경에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기준 10조2032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는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한다. 최하위인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 /연합뉴스

(19.8%) 등은 10%대를 기록했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지급 후에도 97.1%로 100%에 미치진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도 기본살림조차 하지 못할 지경을 의미한다.

서울시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대법 "다리 주물러라… 혐의 인정되지만 무죄"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폭행·협박은 없어"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어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됐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인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강세훈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11

안심전환대출자,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금융위 "특정계층 지원목적 아니다"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은 절반에 달했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대출 9830건 중 4.7%에 해당하는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실제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의 담보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연간 8000만~1억원 소득자는 전체의 4.7%, 6000만~8000만원은 10.1%, 4000만~6000만원은 20.7%, 2000만~4000만원은 20.0%, 2000만원 미만은 39.4%였다"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데다 전체 대출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조사한 전체 안심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지만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6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절반에 가까운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6건으로 8.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억원 이상을 받아간 안심대출은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인정시책"이라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32만건의 전수조사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박아란기자 aln@

YG엔터 특화 카드 출시

우리카드 "YG 팬심 저격"

빅뱅, 2NE1 등 YG엔터테인먼트 팬들을 위한 신용카드가 나왔다.

12일 우리카드는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YG 특화서비스를 강화한 'YG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YG의 CI를 활용한 디자인부터 YG공연티켓 10% 할인과 YG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10% 할인, 음악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팬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넥사 대중교통과 통신료 할인, 영화관과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 할인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카드는 YG신용카드 출시 기념으로 YG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YG신용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 내 10만원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은 추첨을 통해 한정판 스페셜에디션과 빅뱅 사인앨범, 빅뱅 굿즈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카드는 YG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실제 지난 4월 말 빅뱅콘서트 현장에서 YG체크카드 소지 고객에게 빅뱅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한정판 엽서를 제공해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며 "콘서트 초대나 YG 관련 상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아란기자

"2030 세대에 딱" KB국민카드는 2030세대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KB국민 청춘대로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 제공

현대건설 시총, 현대ENG에 또 잡혔다

지난 4일 추월당한 후 격차 더 커져

이달 들어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라잡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역전이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소식이 역전의 원동력이었다면 이번에는 상장 소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의선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이슈와 맞물리며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차그룹의 주력 건설사 자리를 꿰찰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12일 장외거래사이트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2% 오른 101만원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7조6713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일보다 1.14% 빠진 5만226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5조8128억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현대건설의 시총을 추월한 뒤 그 격차를 계속 키우고 있다.

4일 현대엔지니어링은 곧 상장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전 거래일(4월 30일) 76만원에서 19만원 오른 95만원에 거래됐다. 시총도 7조2156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그리고 이날 5만2800원에 마감해 시총 5조7904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을 앞지르는 데 성공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기업과 자기업의 관계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은 현대건설에도 호재이기 마련이다.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3분기부터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라 잡혔음에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실적이 아닌 시총이 역전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룹 내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적어도 투자자들은 모기업인 현대건설보다 자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건설의 공매도 비중도 10%를 넘나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초단기 매매차익을 거두는 기법이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릴 것 같은 종목에 집중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합병한 4월 1일 이전만 하더라도 현대건설의 공매도 비중은 1~3% 내외가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5~6%로 뛰었다. 공매도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가 현대건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자금줄 역할을 할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치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기업공개(IPO)가 유력한 만큼 그룹 내 주력 건설사가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선우기자

이광구식 '우리銀 민영화' 이번엔 성공할까

분산매각 검토…기업가치 제고에 주력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은행 보유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 48.06%를 일괄매각하기보다 5~10곳 정도의 과점주주들에게 분할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높은 가격은 분산하고 투자매력도는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라 작년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를 분할 매각했다.

하지만 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4차례나 실패를 맛봤다.

예보가 보유한 지분 56.97% 가운데 경영권(지분 30%) 지분 입찰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된 데다 소수지분(26.97%) 또한 예정 매각 물량의 3분의 1가량만 팔렸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에서도 통매각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매각을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은행 민영화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6월까지라거나 하는 시한은 두지 않겠다"며 "우리은행 가치를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하고 다양한 매각 방식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역시 오는 14일과 16일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시장 수요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키움자산운용, 삼성증권, KT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마케팅과 상품개발 시너지 강화에 나섰다. 또 보유하고 있던 아이랜드리테일 등 111개 비상장사에 대한 주식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다.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 전단계라고 잘라 말할 순 없지만 거시적으로 민영화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역시 나쁘지 않다.

올 1분기 우리은행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2901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저금리 여파 영향으로 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6bp 하락했지만 원화대출 성장률이 3.16%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선방한 것이다.

특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94%로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다.

상·매각 감안한 신규 고정이하 여신 순증 규모도 30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감소하는 등 건전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 진행될 민영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디스카운트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장 취임사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신속히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하반기부터는 민영화 이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사후 민영화 성공 시 정책은행 역할 축소와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우려 해소로 은행주 내 받았던 디스카운트도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우리은행은 올해 중 다시 예정된 경영권 매각을 위해 이익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히 국책은행의 방향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 우리은행의 역할을 뚜렷이 해야 한다"며 "AIIB의 출범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국책은행의 역할이 재조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으로서 우리은행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현재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존재하며, 경남기업 사태에서 드러났듯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높은 구조는 주주들에게 지속적인 주주가치의 상승을 설득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체적인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대주보 분양률 공개는 생색내기용?

조기 분양률에 국한돼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공개하는 분양률이 조기 분양률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2일 대주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국가통계포털에 조기 분양률이 공개되고 있다. 조기 분양률은 전국 30가구 이상 분양 단지 중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분양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단지가 대상이다. 분양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 대주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정확성이 높다고 분류된다.

그러나 조기 분양률은 분기 내 특정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데이트가 안 돼 확실한 정보공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주보 측은 "애초에 분기별 정해진 날짜에 업체별로 분양률 자료를 받는다"며 "월마다 자료를 내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표될 뿐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단지별 분양률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대주보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것은 분기별 시도단위 분양률이다.

이에 대주보 관계자는 "광역자치 분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군구 세분화 공표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조기 분양률은 광역자치단체만 제시하고 시군구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지별 공개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라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현황은 건설사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건설회사가 신고하는 물량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데에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대주보에서는 받은 수치를 통계 내는 데 그치고 있다. 대주보 내 현재 분양률 통계 작업을 하는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원기자

"출산부터 육아까지 OK" NH농협카드는 엄마를 위한 'NH농협 국민행복카드'에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카드 제공

포스코건설, 英 외무성 연구비 지원 받는다

포스코건설이 영국 외무성 펀드 프로그램(FCO Global Prosperity Fund Programme)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최적화 설계 방안 개발' 과제를 FCO 지속가능성 분야에 제안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자연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전력공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하면 영(Net Zero)이 된다.

포스코건설은 내년 3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 총1만5000 파운드(한화 약 25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포스코건설은 "지원에 힘입어 저탄소 제로에너지 건축물 상용화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외무성은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규제개혁 ▲저탄소 ▲건강 ▲IT ▲반부패 ▲세계경제질서 ▲메노사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번영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개방성 ▲열성 ▲지속가능성 ▲기회 부분으로 다뤄 연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한국에서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매년 약 15개 기관을 뽑는다. 기금 설립 이래 국내 민간기업이 채택된 것은 포스코건설이 최초다.

/유현기자

NHN엔터, 1분기 실적 부진… 신저가 갱신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건 비용 증대·시너지 불확실 증권가 목표가 하향조정

게임업체 NHN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NHN엔터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한데다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건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는 NHN엔터가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을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가를 내려 잡고 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NHN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 보다 0.53%(300원) 오른 5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만57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실적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한데다 네오위즈인터넷 인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NHN엔터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38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38억원 손실을 내며 전분기 31억원에서 적자전환됐다. 특히 PC게임매출이 전년대비 44% 감소하며 적자 폭을 확대시켰다. 다만 모바일게임은 LINE POP2, 크루세이더퀘스트 등 신규 게임 매출이 추가되면서 전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NHN엔터가 예상 외 적자를 기록하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게임 사업의 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손익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9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상반기 신작 게임 출시가 적어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불확실하다"며 목표가를 기존 11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려 잡았다.

NHN엔터는 실적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네오위즈인터넷 지분 40.6%를 106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네오위즈인터넷은 음악 사이트 '벅스'를 운영하고 있다. NHN엔터는 간편결제 서비스 안 '페이코'를 벅스에 도입해 시너지를 확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효과에 기대보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창영 연구원은 "NHN엔터는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결제·보안·커머스·티켓팅·음원·웹툰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게임사업 실적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NHN엔터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대형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마케팅비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게다가 네오위즈인터넷의 '벅스'는 업계 4위 음원 서비스로 페이코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유저 풀의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CJ E&M, 산뜻한 출발 2분기에도 날개달까?

1분기 영업익 흑자전환 해외사업도 순항 전망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CJ E&M'이 올해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 E&M는 최근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293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다. 1분기 광고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영화사업 매출 역시 '국제시장'의 흥행과 '명량', '하모니' 등의 부가판권 확대도 32% 이상 늘었다. 유지컬 '킹키부츠'의 흥행 등으로 공연사업 매출액은 68% 이상 급증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광고시장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와 음악·공연 부문이 수년 만에 흑자 전환하며,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방송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판매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의 성장을 통한 매출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며 "영화부문 역시 올해 개봉하는 8편의 해외 영화의 성적에 따라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CJ E&M의 해외사업 역시 순항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민정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텐센트의 지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중국 사업 확대는 게임에서 시작해 영화·드라마·예능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 및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현지 법인은 제작·배급·유통에 걸친 전반적인 해외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승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부문도 현지 방송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합작사 설립을 통해 공격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CJ E&M 홈페이지 캡처

한화證 "문고가공원서 쉬었다 가세요"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 1층에서 '한화 문고가공원' 일요음악회를 열었다. 한화 문고가공원 일요음악회는 도심 속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곳에서 음악공연을 비롯해 연극, 낭독, 영화, 전시 등 여러 문화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안타證 "선강퉁 대비 심천·상해 집중투자"

中본토중소형펀드 추천

유안타증권은 12일 중국본토 중소형주식에 투자하는 RQFII펀드인 '신한BNPP중국본토중소형주 RQFII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을 유망 투자상품으로 추천했다.

이 펀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 가운데 인프라, 헬스케어, IT 서비스, 환경, 소비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해 상해 및 심천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지난달 27일 첫 선을 보인 이 상품은 판매 9일 만에 가입금액 500억원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선강퉁 시행에 앞서 성장성 높은 심천 A주식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다 투자 비중 또한 사중펀드 대비 높아 개인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특히 심천 A주식을 70% 이상 투자해 시중에 운용되고 있는 중국본토 펀드 중 심천 증시 투자 비중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 펀드는 중국 금융시장에 위안화로 직접투자가 가능한 자격인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라이선스를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취득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중국본토의 전문 운용사인 HFT Investment(해통자산운용)와 자문 계약을 신한BNPP자산운용 홍콩법인과 위탁운용 계약을 맺고 운용한다.

펀드의 종목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HFT Investment는 중국 업계 2위의 해통증권에 지분을 보유한 계열자산운용사로, 중국본토 자산운용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로부터 'Highest Standard' 등급을 받았다.

신한BNPP자산운용 홍콩법인은 HFT의 자문을 받아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성과분석을 담당한다.

/김보배기자 bobae@

벤츠코리아, 獨 4사 중 베스트셀링카 꼴찌

올 1~4월 수입차 판매 집계

잇단 리콜·안일한 서비스 2개 모델 판매량 8·9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이사 브리타 제에거)의 베스트셀링카 선호도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기준 국내에서 많이 팔린 상위 수입차 모델은 독일차가 휩쓸었다.

이 중 ▲폭스바겐은 1, 3, 6위 ▲아우디는 2, 5위 ▲BMW는 4, 7위를 기록하며 이들 3사가 1~7위를 석권했다.

반면 벤츠는 8, 9위에 그쳤다. 10위는 일본차 중 유일하게 렉서스가 이름을 올렸다. 벤츠가 독일차 4사 중 최하위에 머문 셈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클래스

폭스바겐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판매량 3454대) ▲골프 2.0 TDI(2213대) ▲파사트 2.0 TDI(1807대) 등이 각각 1, 3, 6위로 3개 모델이 톱 10에 진입했다.

아우디는 ▲A6 35 TDI(2363대) ▲A6 45 TDI 콰트로(1859대) 등 2개 모델이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BMW는 ▲520d(2100대) ▲118d 어반(1538대) 등 2개 차종이 각각 4, 7위를 기록했다.

반면 벤츠는 ▲E 220 블루텍(1478대) ▲C 220 블루텍(1462대) 등 2개 모델 판매량이 8~9위에 그쳤다.

톱 10 중 유일한 일본차인 렉서스 ES300h(1368대)를 근소한 차로 앞섰을 뿐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가 각각 2~3개 모델씩 1~7위에 포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잇따른 리콜로 야기된 품질 문제 및 벤츠코리아의 안일한 애프터서비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모델을 불문하고 갖가지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잇따르면서 벤츠가 더 이상 예전의 품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 꺼짐이 발생한 C 200 1187대와 엔진오일 누출로 엔진룸 화재 가능성이 있는 E220 등 10개 차종 1572대를 리콜 조치했다.

전달에는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된 E 클래스와 CLS 클래스 13개 차종 1만6504대 리콜을 결정했다.

이달 들어 중국에서는 파워 스티어링 볼트 장기사용 시 훼손 가능성이 발견된 A클래스와 B클래스 차종 1만9000여대가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의 애프터서비스 부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벤츠코리아의 애프터서비스가 느리고 비싸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E 350 블루텍을 구매한 이성준(가명)씨는 "뽑고 하루 만에 차가 고장이 났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고 엔진 체크등에 불이 들어왔다"며 "센서 문제라 리셋을 하면 된다더니 다음날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오려면 2주 정도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C 220 오너인 박길영(가명)씨는 "출고한 지 2년도 안 돼 계속 시동이 안 걸렸다"며 "서비스센터에서 시동에 관련된 부품이 3개가 있는데 그걸 다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 이후에도 문제가 재발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니 권한이 없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라영철기자 ramen@metroseoul.co.kr

기사제보 02)721-9861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바가지' 오디오 불량에 수리비 800만원

사제 수리땐 100만원

벤츠 차주인 이정훈(가명)씨는 지난달 올해로 4년째 타는 벤츠 C200의 수리를 맡겼다. 오디오에 CD를 넣으면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날 뿐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제 오디오 전문점에서 수리비를 100만원 들여서 고쳤다. 큰돈이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커맨드 시스템을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며 700만~8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했기에 '싸게 고쳤다'고 생각했다. 오디오 수리비가 한국의 경차 값에 육박할 정도로 '바가지 수리비'라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랑하던 커맨드 시스템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벤츠 차량의 커맨드 시스템은 라디오, 전화, DVD, CD, MP3 CD,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모두 통합돼 있다. 특히 독일 본사에서 한국시장만을 위해 개발했다는 한국형 커맨드 시스템은 7인치 터치스크린과 음성인식 등으로 출시 당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 벤츠 C클래스의 커맨드 시스템 고장은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고질병'으로 불리는 수준이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수입자동차 전문수리업자는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C클래스 커맨드 시스템을 수리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벤츠 뉴 C200 아방가르드 내부 커맨드 시스템.

터치스크린 불량, 모니터 불량, 오디오 불량 등 고장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문제는 '통합' 커맨드 시스템,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도 공식 서비스센터 측은 커맨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벤츠의 경우 수리 후 또 다시 같은 고장이 날 경우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새것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전문 수리점에서 이뤄지는 부분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CD플레이어 고장으로 8군데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에 본지가 직접 문의한 결과 가장 수리비용이 저렴한 곳은 70만원, 가장 비싼 곳은 240만원을 요구했다. 평균 수리비용은 약 140만원이었다.

한 수리업체 관계자는 "고장이 심할 경우 폐차나 해외에서 구한 중고 커맨드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판' 커지는 OLED 패널 시장… 삼성D 위상 흔들

스마트폰서 TV로 변화
대형패널 생산 답보상태
LGD 독점 中 추격 부담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TV용 OLED 패널 시장 재진입에 난항을 겪는 데다 중국 업체가 속도전을 예고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OLED 패널 시장은 중·소형에서 대형·플렉시블 패널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들어가는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TV와 스마트와치 등으로 OLED 패널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위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삼성전자 제공

본격 개화를 앞둔 TV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사실상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RGB 기술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형패널 대량 생산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만이 유일하게 TV용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가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와치용 패널시장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는 점유율(매출기준) 3.1%에 그쳤다. 같은 기간 LG디스플레이가 점유율 90.9%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업체의 공격적 투자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에게는 위협요소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한국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보조금 기준 아리송… '그린홈 100만호' 물 건너 갔다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하도급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하도급 100% 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그린홈 100만호를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산업부는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사업(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 지역 융복합지원사업)에 올해 983억5800만원이 투입된다. 주택지원에 473억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건물지원 200억원, 지역지원 210억원, 융복합지원 100억원 등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원을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린홈 사업은 지난해 21만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은 산업부가,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융복합건물과 지역단위 보급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 계획서 검토와 평가, 보조금 집행 등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집중되면서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제대로 공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업 취소 등을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사업 범위나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자율출퇴근제… 일·가정 두 토끼 잡는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 방문한 가족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직장인들에게 가정을 돌려줬다. 올해 시행된 자율출퇴근제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워킹맘들은 아이들과 아침을 함께 하며 스킨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김미래(가명·여) 과장은 "요즘 아이와 같이 아침을 먹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 뒤 오전 10시30분께 출근할 때가 많아졌다"며 "아이가 아플 때나 유치원 행사 때 반차나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진주(가명·여) 씨는 "어버이날(8일) 부모님 댁에 들러 점심을 차려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출근했다"며 "부모님이 아쉐이 효도하는구나라고 하시며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 '워크스마트'… 자율출퇴근제 대만족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말부터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일하면 된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2014년 7월 디자인과 연구개발직군으로 확대됐고 현재 생산직을 제외한 전 직군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스마트폰, TV 등을 생산하는 경기 수원사업장도 비슷한 시기에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출퇴근제는 삼성전자의 워킹맘에게 보육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됐고 워킹파파에겐 불타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가족여행을 선물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의 유연화는 삼성전자가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워크스마트(Work Smart)가 원동력이다. 워크스마트란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탈피해 창조적으로 일하는 의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구축해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9년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임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자율출근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지난 2011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 사업장 어린이집 운영·12세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

삼성전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자율출퇴근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오전6~오후10시 사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어린이집	삼성전자 서초, 수원, 구미, 광주 등 전 사업장에 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 유연화	여성 직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 만 12세로 상향 조정
난임 휴직제도	난임 시술이 필요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패밀리삼성	사내 임직원과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포털 운영

◆ 육아휴직 가능 자녀연령 12세로 '상향'

자율 출퇴근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세계 일류기업답게 가정같은 직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서초, 수원, 구미, 광주 등 전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여직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법적기준으로 현재 만 8세인데 자체적으로 만 12세로 상향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난임휴직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출산 시 전 임직원에게 출산 선물도 주고 있다.

서초사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자율출퇴근제나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가정일도 챙기고 부모님 등 가족도 챙기게 됐고 보육 걱정도 덜었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패밀리삼성'으로 가족간 소통 지원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 방문한 어린이들이 미니보트를 타며 즐거워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복지 범위는 임직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가족까지 챙기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게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온라인 가족 커뮤니케이션 포털 '패밀리삼성'(www.family.samsung.com)을 통해 사내 임직원 소통을 넘어 임직원의 가족과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7월 오픈한 패밀리삼성은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인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소개한다. 또 가족이 회사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해주는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패진들은 공연, 책소개, 요리, 생활의 지혜 등 다양한 소재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412건이 게재됐으며 '월간엄마생활', '클래식 까발리기', '사계토끼의 Book-Trip', '한복생활기' 등 브류제목도 이채롭다.

'쌔쌈둥이를 키운다', '다문화가정이다' 등 독특한 가족사의 글을 쓰면 경품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이는 등 포털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각 사업장에서 자녀들과 부모를 사업장으로 초청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회사에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가정이 평안해지면 일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만큼 고객만족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시내면세점 쟁탈전… 후보지, 법인 윤곽

SK네트웍스 '케레스타'·하나투어 '인사동 본점' 확정
현대百-중소·중견기업 합작법인 설립… 이랜드도 가세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마감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입점 후보지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등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SK네트웍스 '케레스타' 점찍어… 현대백·중소·중견 합작법인 '현대DF설립'

대기업에서는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SK네트웍스(워커힐), 한화갤러리아, 호텔롯데, 신세계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랜드도 가세했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는 12일 시내면세점 입지로 동대문 케레스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SK네트웍스는 명동 시옥을 중심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왔다. 하지만 경쟁사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동대문이 지닌 우리나라 대표 관광 허브로서의 입지적 탁월함과 워커힐 면세점의 유커 특화서비스, SK네트웍스의 자금력과 글로벌 사업역량이 결합한다면 최상의 시너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이날 중소·중견기업들과 손잡고 합작법인 '현대DF'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현대DF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투어네트워크, 국내 최다 17개 호텔을 거느린 앰버서더호텔그룹 계열 ㈜서한사, 인천지역 공항 항만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엔타스듀티프리, 개성공단과 크루즈선 면세점을 보유한 현대아산㈜, 패션 잡화업체 ㈜에스제이듀코(뉴욕 브랜드 운영)와 ㈜제이엔지코리아(JEEP 브랜드 운영) 등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도 부합하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초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최종 확정했다.

이랜드그룹도 시내면세점 쟁탈전에 가세했다. 입지 후보지로 강남 뉴코아아웃렛과 송파 NC백화점, 강서 NC백화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해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다"며 "사업지를 결정해 이른 시간 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면세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동대문 롯데피트인, 김포공항 롯데몰, 신사동 가로수길, 신촌, 이태원 등을 입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2위인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부지에 면세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갤러리아도 여의도 63빌딩을 면세점 부지로 정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 하나투어 인사동 본사 확정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는 하나투어도 사업후보지로 인사동 본사를 확정했다.

최현석 하나투어 대표는 12일 "본사 건물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후보지로 정했다"며 "특히 문화 내게 되면 리모델링을 거쳐 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입찰에는 유진기업, 하이브랜드, 한국패션협회 등이 도전하고 있으며 동화면세점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유진기업은 옛 MBC사옥을, 하이브랜드는 서초구 양재동에 운영 중인 복합몰 2개층을 사업후보지로 정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울시내 3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내 3곳의 신규 면세점 가운데 두 곳은 대기업에, 한 곳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은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와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 공헌도(150점)와 함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정윤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현대아이파크몰+호텔신라의 면세점 후보지인 용산 아이파크몰

왼쪽부터 SK네트웍스의 면세점 후보지인 동대문 케레스타,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된 여의도 63빌딩

휴플러스, 호주 와인 빈53 시리즈 3종 출시 12일 서울 휴플러스 명동포점에서 모델들이 호주 와인 빈53(BIN53) 3종을 선보이고 있다. 빈53 시리즈는 샤도네이(화이트), 쉬라즈(레드), 까베네 소비뇽(레드) 3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휴플러스는 빈53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9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패션협회, 면세점 컨소시엄 추진 지지부진

무산 가능성도… 의향서 제출 일주일 연장
회원사 "투자금액 부담… 입찰 성공 불확실"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시내면세점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패션업체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면세점 사업자 접수 신청 마감이 6월1일까지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일각에서는 협회의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패션협회는 면세점 컨소시엄 참여 의향서 제출 기한을 지난주에서 이번주까지로 연장했다. 업체들이 쉽게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설명회 개최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참여 업체가 모인다고 해도 수십억원으로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은 무산된다.

회원사 측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은 데다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도 입찰을 따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A 중견 패션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데다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협회 측에서 제시한 면세점 후보지 역시 회원사들이 답변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협회는 후보지로 서울 동대문의 롯데피트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롯데 역시 롯데피트인을 면세점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참여를 고사한 B 업체 관계자는 "면세점이 전망이 좋아 패션 업계라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롯데도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원 등 중견패션기업들이 패션협회의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협회는 10~15개 업체를 모아 컨소시엄을 꾸린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동대문 인근을 유력 후보지로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롯데월드몰, 무료관람 3일간 26만명 몰려

롯데월드몰이 아쿠아리움과 시네마 재개장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12일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에 따르면 지난 9~11일까지 3일간 진행했던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에 대한 무료 관람 조형 행사 기간 동안 롯데월드몰을 찾은 소비자는 총 26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하루 평균 방문객(6만6000명)보다 30% 가량 많은 수치다.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의 경우 각각 하루 평균 2000명과 1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다녀갔다.

면세점의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의 하루 평균 방문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은 20%, 내국인 방문객은 30%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출도 증가해 중국인 관광객은 10%, 내국인은 27% 가량 늘었다.

롯데물산 박현철 사업총괄 본부장은 "3일간의 무료 관람 조형 행사를 끝내고 금일 아쿠아리움과 시네마를 정식으로 재개장 하게 됐다"며 "이번 재개장으로 2만~3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추가로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 2200억 들여 통합식품연구소 확장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총 2200억원을 투자해 통합식품연구소를 확장 건립키로 하고 12일 착공식을 가졌다.

통합식품연구소 설립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기존 롯데중앙연구소의 기능을 보강해 2017년까지 확장 설립하는 것이다.

기존 롯데중앙연구소는 식품 관련 신제품 개발, 기술 확보, 위생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식품 트렌드가 급변하고, 기능성 식품을 포함한 바이오(Bio) 분야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능을 한곳에 통합한 식품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새로운 롯데중앙연구소는 착공 후 2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오픈할 예정이다.

License News

자격증 전문교육 | 목민서원

제1회 '배관세척관리사'를 노려라!

노후배관 정밀진단과 세정을 통해 유지관리 필요!

노화된 배관들은 정밀진단(CI) 세정을 통해 배관의 유지관리 필요

▶ 배관세척관리사란?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에는 인간의 혈관처럼 수도배관 및 난방배관 등을 통해 물이 순환되고 있다. 이 물들은 배관의 상태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거나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배관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물이 지어진 후 약 3~5년이 지나면 수도관 내부에는 물때, 미생물, 유해 화학물질들의 오염물질이 쌓이고 녹이 발생하여 음용하거나 샤워, 설거지, 빨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은 이 오염된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여 섞여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잔류 염소가 용유되어 나오는 수돗물은 피부질환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난방배관의 경우 관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부식된 찌꺼기들이 쌓여 난방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가스비나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배관세척관리사가 절실히 필요로 된다.

▶ 배관세척관리사의 전망 및 응시자격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개선사업 및 상수도 정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의 3% 정도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생수구입 또는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옥내 수도배관의 노후화이다. 아파트나 공공건물 같은 빌딩들의 노화된 배관들은 건축물의 준공연도 및 배관 재질상태, 급수방식, 수압상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배관의 누수 여부나 취약 지점은 정밀한 진단과 세정을 통해 배관의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배관세척관리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자격증인 배관세척관리사는 아파트관리실, 빌딩관리실,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며 소자본으로 배관청소업을 창업할 수도 있다. 배관세척관리사는 학력, 성별, 경력, 나이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본 자격증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교육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제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관세척관리사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2-0703호
발행기관: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
자료제공: 목민서원 206-93-0168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 080-800-8087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라!

전문적인 취업컨설팅 필요성커져...

직업교육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수요급증

■ 직업상담사란?

직업상담사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과 취재성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공인자격 제도이다. 최근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교육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직업 상담사는 청년과 재취업하려는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검사를 통한 구직자의 흥미 분야를 안내하는 일부터 직업 상담 행정 업무와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보다 전문적인 업무로 수행한다.

■ 직업 상담사의 업무 및 전망

최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면서 이직과 전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청년실업자 증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요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직업상담사의 전망은 밝다. 직업 상담사의 업무로는 직업에 관련된 제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 상담, 창업 상담, 경력개발 상담, 직업적응 상담, 직업전환 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과 관련된 상담이 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사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기업, 관공서, 학교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며 직업 상담소를 창업할 수도 있다.

■ 응시자격 및 시험요강

직업상담사는 학력, 성별, 나이, 경력 등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 되며 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 및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은 실무 과목으로 1차 시험 합격자 중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직업 상담사에 관한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제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제공: 목민서원 206-93-0168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 080-800-8087

'농산물품질관리사'

건강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흐름의 확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관심

▶ 농산물품질관리사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좋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안전한 먹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효율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개선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 증가로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전망이 밝고 취업률이 높은 전문자격증의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및 전망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브랜드 개발 및 포장 등 마케팅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수행 한다. 주로 농산물관련단체의 가공, 유통회사에 취업하거나 친환경농산물 판단, 식품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컨설팅회사 등 폭넓은 취업이 가능하다. WTO 가입 후 수입농산물의 국내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해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농산물유통센터와 기업 및 농산물관련 분야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과 채용을 의무화하고있는 추세로 각광받는 유망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및 시험요강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학력, 성별, 경력, 나이 등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총 4과목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 중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은 실무 2과목으로 1차 시험 합격자 중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자격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제경고시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제공: 목민서원 206-93-0168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9(도선동)

교육용 무료전화 080-800-8087

캘리포니아 아몬드 푸드트럭 이벤트 캘리포니아 아몬드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아몬드 푸드트럭이 거리의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온 더 로드'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정문알로에 '제주 생산시대'

창립 40주년 맞아 원스톱 시스템 도입 "5년 내 매출 1000억 돌파"

/김정문알로에 제공

자연건강문화기업 김정문알로에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주 생산시대 출범을 선언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연매(56·사진) 김정문알로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제 공장을 제주로 모두 이전해 알로에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한 고기능성 제품을 바탕으로 중국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2020년까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김정문알로에의 제주 생산시대는 김제 공장을 제주 공장으로 모두 이전해 알로에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의한 GMP 생산 설비를 업계 선두로 구축해 최상의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온 김정문알로에 공장이 제주에서 친환경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알로에 최적 재배지인 제주산 알로에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6시간 만에 모든 공정을 마침으로써 고품질 알로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김정문알로에가 제주 알로에를 고집하는 이유는 품질 때문이다. 제주에서 자란 알로에가 알로에 유효성분을 최대한 보유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김정문알로에만의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며 제주산 알로에의 차별화를 추구해 왔다. 최 회장은 "청정지역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일조량 좋아 알로에를 재배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키울 수 있다"며 "이번에 제주공장을 이전하면서 신선하고 최고 품질의 알로에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문알로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알로에 힐링 센터를 건립해 알로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 회장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유행을 타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과 안전이라는 근본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계속 커질 것"이라며 "꾸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알로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문알로에는 주된 수입 채널인 방문판매의 하락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곽민순 김정문알로에 사장은 "주변환경 변화와 건강식품의 세분화에 따른 내재가 높지 않았나 한다"며 "하지만 방문판매가 줄어 위험하다는 얘기는 20년전에도 있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kimbr813@metroseoul.co.kr

오비맥주 '벨기에 트리오' 선봬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는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호가든·스텔라 아르투아·레페'로 구성된 '벨기에 트리오(Belgian Trio)'를 선보인다.

회사측은 최근 벨기에 맥주가 국내 맥주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식음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벨기에 트리오'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국제관 '벨기에 부스' 내 오비맥주 부스를 찾는 방문객은 벨기에 트리오인 호가든·스텔라 아르투아·레페에 대한 브랜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부스 내 상담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업종 간 협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뚜레쥬르, 건강한 한끼 '순브레드' 출시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뚜레쥬르는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고품질 빵 메뉴들을 '순(純)브레드'라는 이름으로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순브레드의 대표 메뉴는 캄파뉴에 크랜베리와 통곡 알곡을 넣은 '크랜베리 통곡 캄파뉴'와 검은깨 바게트 등이고 순브레드 식빵류로는 현미·보리·흑미 등 여러 곡물로 만든 '오비카(쌀)식빵'이다.

동원F&B, 팔도와 '골빔면' 협업 마케팅

동원F&B(대표이사 박성칠)는 국내 비빔면 시장 1위 업체인 팔도와 골빔면(골뱅이+비빔면) 레시피를 선보이는 협업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동원F&B와 팔도는 골빔면 레시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시식 행사와 할인 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팔도비빔면 묶음 포장에 동원 구운골뱅이의 이미지와 골빔면 레시피 디자인을 입혀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골빔면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풀무원건강생활 '로하스생활기업' 도약

로하스적 가치 제공 확대 올해 매출 1500억원 목표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오디토리움에서 가맹점장과 헬스어드바이저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하스 생활기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여익현 풀무원건강생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패턴 등 로하스적 소비 확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음료 등 식생활에 기반을 둔 제품에서 가정의 생활습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로하스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까지 추구하는 확장된 기업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슬로건 '자연을 사람에게'는 인간의 건강과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풀무원건강생활의 로하스 가치를 담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로하스 핵심원칙은 자연에서 찾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료원칙과 국제규격 기준에 맞는 깨끗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조원칙, 영양균형과 Low GL(Glycemic Load, 혈당부하)의 가치를 담은 로하스 식생활 원칙,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원칙이다.

이 같은 로하스 핵심원칙에 따라 식생활 부문은 그린체, 풀무원녹즙, 풀무원프로바이오, 베이비밀 잇슬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이샐린(스킨케어브랜드), 풀무원더스킨(청소용품 렌탈서비스), 아미오(반려동물 건강먹거리)가 포함된다. /김보라기자 bora@

파리바게뜨 'The 맛있는 프랑스빵' 300만개 팔렸다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파리바게뜨는 'The 맛있는 프랑스빵' 11종이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300만개 이상 팔렸다고 12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The 맛있는 프랑스빵'은 '프랑스빵은 건강에 좋지만 맛은 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프랑스빵을 더욱 맛있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소비자를 위해 특화된 발효종과 장기숙성 저온발효법을 사용, 치즈·초콜릿·견과류 등 부드러운 프랑스빵'과 70년 제빵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프랑스 본고장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The 맛있는 프랑스빵' 인기로 파리바게뜨의 프랑스빵 제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The 맛있는 프랑스빵'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맛에 대한 높은 니즈를 만족시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프랑스 정통 빵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자 모두가 프랑스 본고장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말했다.

대상, 청도군·네이처팜과 MOU 체결

대상(대표 명형섭)은 12일 경북 청도군청에서 청도군, 네이처팜과 청도반시 제품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의 특산품인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은 상품기획과 연구개발·유통판매를, 네이처팜은 원료수매·생산을, 청도군은 감 재배과 관련한 홍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은 5월 중 청도반시를 건조해 만든 신제품 감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곶감을 소재로 기획됐다.

교사, 일반인보다 성대결절 3.9배 높아

나쁜 발성습관이 주범
통증 2주 이상땐 위험
킬러 등 주사치료 도움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마땅히 고르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 목소리 건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사는 목소리 사용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성대 건강에 이상이 오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성대결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직 진료인원 10만명 당 76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인 10만명 당 195명에 비해 무려 3.9배나 많았다. 또한 성대결절 환자는 연평균 1.8% 증가했고, 여성환자가 남성의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성언어치료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교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목소리 사용량 자체가 많고, 지속적으로 음성의 오용이 반복되는 만큼 성대결절과 같은 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 역시 높다"고 말한다. 안 원장은 "평소 성대를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교사는 매일 하루 4~5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성대는 항상 피로한 상태고, 피로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성대가 손상되기 쉽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대결절이다.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목소리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 점막에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 성대 점막이 두꺼워지면서 쉰 목소리가 나는 질환이다. 후두검으로 관찰했을 때 강한 성대 접촉 현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심한 경우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또한 갑자기 고함을 지는 등 과도한 발성을 내면 성대 점막 안쪽에 출혈이나 부종이 생겨 종기가 형성되는 성대폴립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평소 잘못된 발성습관을 가졌다면 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은 더욱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발성습관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문데 발성습관이 나쁠수록 목소리를 낼 때 성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는 곧 성대의 피로도로 이어져 조금만 무리해도 목이 쉬거나 통증이 느껴져 헛기침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만성 음성질환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목소리 사용이 많은 교사는 평소 성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성대의 피로도가 높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업 중간 중간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물을 마시거나 마사지를 통해 성대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성대를 만들고, 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언어치료사의 협진을 통해 주 1~2회의 1개월 이상의 음성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본인의 발성습관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호흡, 발성을 훈련해 성대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민 원장은 "그러나 교사의 대다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꾸준히 음성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방학 때로 치료 시기를 늦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이런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성대 근육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하는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잦은 주사치료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잘못된 발성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도움말: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
/최치봉기자 ehsun@metroseoul.co.kr

'진행성 질환' 하지정맥류, 조기 치료 중요

자연치유 안돼… 방치땐 피부염증 유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지난해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5만6000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미루는 환자가 상당수다. 외과전문 민병원 정맥류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하지정맥류로 내원한 환자는 약 660명인데 이 중 약 41%(270명)만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압력이 높아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장시간 서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며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팽창하기에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푸른 빛으로 색이 비치기도 한다.

민병원 정맥류센터 김희윤 부원장은 "하지정맥류는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과 달리 방치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간혹 피부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다리를 조이는 옷은 피하고 자주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하지정맥류 질환을 검사받고 있다. /민병원 제공

이대목동병원 이렴아 교수, 대장항문학회 학술상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이대목동병원 위암 대장암센터 이렴아(사진) 교수 연구팀이 2015년 춘계 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서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을 수상했다.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은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매년 우수한 연구 학술활동으로 대장암 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의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렴아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에서 기능적 수용체 베타1 인테그린의 역할을 밝힌 논문 'Role of β1 Integrin in Colorectal Cancer: Case-Control Study'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이번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렴아 교수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부설 김멜 암센터와 미국 워싱턴대학 로봇수술 연구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지금까지 대장항문 관련 분야에서 많은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홍차 풍미에 달콤·상큼 더했다

립톤 아이스티 망고 패션프루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국내 RTD 홍차 1위 브랜드 '립톤 아이스티'의 신제품 '망고 패션프루트'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립톤 아이스티 망고 패션프루트'는 120년 전통의 세계 1위 차 브랜드 립톤이 자랑하는 깊은 풍미의 홍차맛에 달콤 상큼한 맛이 돋보이는 열대과일 망고와 패션프루트를 섞은 홍차 음료다.

홍차의 부드러운 맛과 이색적인 열대과일 맛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열대과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대중적인 수입과일로 급부상한 망고에 백향과로 불리는 패션프루트를 섞어 이색적인 맛이 돋보이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배달의 민족’ 몸집 커졌지만 품질은 영~

영세업자들, 과도한 수수료 부담… 책임 회피 등에 소비자 불만도

배달 업계를 평정한 '배달의 민족'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앱의 시장지배력이 커진점을 이용해 최대 9%수수료 이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별도 추가와 월 광고비(3만~5만원) 등을 받고 있다. 대부분 사용자는 영세 분식점, 중국집, 치킨집, 족발집 등 자영업자들이다.

배달의 민족은 작년 연간 매출 300억원, 월 주문량 500만건, 앱 누적 다운로드 1700만건에 이른다.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장사하기 힘든 수준이다.

특히 매출은 늘지만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취소나 환불이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 등 소비자 불편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양천구에서 10년째 중식집을 운영해온 정한숙(가명)씨는 "최근 한 달 매출의 10% 이상을 수수료와 관련 비용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회사 5곳에 자신의 가게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문 1건이 들어올 때마다 정씨는 많게는 음식값의 9%를 수수료로 지불했다. 게다가 월 광고료도 부담이다. 정씨는 "수수료가 아깝지만 동네 다른 가게들도 1등인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달 앱 서비스 수익은 예컨대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의 민족 측에 최대 900원가량을 떼고 나머지를 음식점이 가져가는 구조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배달 앱으로 시킨 음식이 양도 적고 부실하다'는 글도 종종 게시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음식점 주가 손해 보는 부분만큼 음식 질이 저하되거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최근 배달 앱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더해 정보의 신뢰도나 음식 안전사고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외에도 취소와 환불의 번거로움, 계약 불이행, 책임 회피 등과 같은 소비자 불만 사례도 많다. 소비자가 맛이없다는 리뷰를 올리자 배달 배달업체에서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가 됐을 경우 책임을 회피한 경우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소비자 양성훈(가명)씨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 후 개인 사정으로 바로 취소요청을 했는데 전산시스템이 오류로 뜨고,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이미 조리에 들어가서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성소비자 연합측은 "소비자가 늦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배달앱 서비스 연결지연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도 업체측은 책임이 없다. 소비자가 가맹점 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중간에서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똑똑한 ‘LG워치 어베인 LTE’

건강체크·통화·결제까지

LG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LG워치 어베인 LTE(이하 어베인 LTE)'를 보름 동안 테스트했다. 첫 인상은 일반 시계와 다를 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베인 LTE는 '건강노트', '심박체크' 등 다양한 건강 헬스 앱을 탑재해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용자들에게 제격이다.

사용자가 장시간 이동 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경우 오전 10시쯤 도 되면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어주세요'라는 알람을 보낸다. 또 오후 6시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 걸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하루 목표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알려주는 것이다.

또 중력, 가속 등을 포함하는 9축 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는 나침반이나 운전 고저차가 있는 산행 등에서 요긴하다. 기압센서나 심박센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의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워치 최초로 결제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도 장점이다.

손목을 NFC 결제기기에 갖다 대면 충전과 결제가 가능해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꺼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대중교통 이용시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 간단하게 손목만 결제기에 갖다대면 해결된다. 다만 시계줄의 잠금부분에 NFC 칩이 탑재돼 안쪽을 버

LG워치 어베인 LTE의 화면을 통해 메시지 확인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그해야 한다.

어베인 LTE는 자체 통신기능을 갖춰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시켜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거나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메일 계정을 따로 등록하면 메일을 확인하거나 작성해 보낼 수 있다.

집안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음성 통화를 할 때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통화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통화할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통화 내용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은 700mAh로 스마트워치 가운데 세계 최대지만 하루를 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일반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단자가 아닌 별도의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양성운기자 ysw@

블루투스 스피커로 어디서나 생생한 음악 즐겨요

화창한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면서 캠핑, 레저, 스포츠 등을 즐기는 야외 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 즐거운 나들이 길에 흥겨운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만 있으면 야외에서도 나만의 음악감상실을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스피커 '레벨 박스 미니(사진)'는 휴대성을 향상시킨 모델이다. 블루투스 3.0과 APTX 코덱 등을 지원해 CD 수준의 음질을 감상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벨 앱을 통해 볼륨 등 다양한 기능 제어가 가능하다.

NFC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모바일 장치와 쉽게 연결되고 충전식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25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LG전자의 'LG 포터블 스피커'는 20와트(W)의 고출력 사운드가 특징이다. 중저음 영역을 담당하는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깊고 풍부한 중저음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IT기기를 동시에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LG 사운드 싱크 기능이 지원되는 TV와 연결하면 미니 사운드바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9시간 재생할 수 있다.

JBL의 블루투스 스피커 '펄스'는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이 음악에 따라 변하는 'LED 라이트 쇼'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다. 자체 설정 모드뿐 아니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다양한 라이트 쇼를 연출할 수 있어 야간 활동 시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연속재생 시간은 5시간이다. /조효정기자 hyo@

LG전자, G4 번들 이어폰 ‘쿼드비트3’ 판매

LG전자는 스마트폰 'G4 이어폰스 형태로 제공되는 '쿼드비트3' 이어폰을 별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G시리즈 스마트폰의 번들 이어폰인 쿼드비트 시리즈는 고가 프리미엄 이어폰에 못지 않은 음질로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쿼드비트3는 전작 쿼드비트2 대비 음질과 디자인을 대폭 강화했다.

LG전자는 자체 설계한 '쿼드 레이어(Quad Layer)' 진동판을 쿼드비트3에 적용해 음질을 개선했다. 쿼드 레이어 진동판은 4개의 층으로 이뤄져 단층 구조 진동판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풍성한 저음과 명료한 고음을 동시에 표현한다. 쿼드비트3는 우레탄 소재의 음색 보강 필터를 탑재해 날카로운 소리를 제어하며 더욱 자연스러운 음색을 들려준다.

쿼드비트3는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을 적용해 고급스러움도 더했다.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은 줄이 잘 엉키지 않고 손으로 만질 때 발생하는 노이즈도 적다. 이 제품은 귀 형상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구조를 채택해 오래 사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음향기기 평가전문 사이트 골든 이어스는 쿼드비트3에 대해 "저음은 매우 단단하고 힘차고 고음은 맑고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현기자 sun21@

"답 없는 연기, 끝없이 고민하게 해"

'차이나타운'으로 눈도장

엄태구

많은 배우들이 말한다. 연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카메라 앞에 서지만 정작 스크린에 담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엄태구(31)는 그런 연기의 고민을 "궁금궁금"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답이 없으니까 헷갈리기는 하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끝도 없이 계속 '궁금궁금' 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작품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궁금거리는 순간 속에서 빛나는 한 순간을 잠시나마 발견할 때, 엄태구는 비로소 안도한다.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에서 엄태구는 엄마(김혜수)의 오른팔이자 일영(김고은)을 묵묵히 지켜주는 우곤 역을 맡았다. 출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선 굵은 외모와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깊이 있는 목소리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남겼다.

눈빛, 송(이수경)에게 일영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바지주머니에서 손을 빼던 모습, 그리고 일영과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곤이 "엄마 미워하면 안 돼"라고 말한 뒤 "미안해"라고 말하기까지의 아주 짧은 사이의 순간. 엄태구가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인상적인 장면들은 실제로도 영화에서 우곤의 존재감이 가장 빛나는 것들이다.

19세 무렵 교회 촌극을 통해 연기를 접한 엄태구는 엑스트라를 시작으로 단역과 조연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단편영화와 장편영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그리고 미니시리즈 드라마와 단막극 등 영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작품들로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도 쌓았다.

지난해 형 엄태화 감독이 연출한 '잉투기'의 주연을 맡으면서 류승완 감독-류승범에 이은 제2의 감독-배우 형제로 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관심 속

형 엄태화와 제2의 감독-배우 형제 주목
김혜수 오른팔-김고은 지킴이로 존재감
롤모델은 김혜자… 편안한 배우 되고파

"우곤은 남자가 봐도 멋있었어요. '모래시계'의 이정재 선배 생각도 났고요.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우곤이 지도(고경표) 패거리에 맞서 일영을 구하고 죽는 설정이었거든요.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인물이었죠."

영화 속 우곤은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엄마와의 첫 만남은 물론 엄마의 오른팔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영화는 우곤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엄태구는 우곤으로 살기 위해 영화가 말하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상상하고 또 상상했다. 그때마다 엄태구의 마음은 "궁금궁금"거렸다. 고민들 때문에.

엄태구는 "궁금거리면서 찾은 답이 만족스러웠던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순간 다행스러운 느낌이 드는 장면을 포착할 때는 있다. 눈 밑에 상처가 난 일영을 바라보는 우곤의

에서도 엄태구는 영화 '인간중독'과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비터돔' 등에 출연하며 변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낯가림이 심한 편인 그는 한때 배우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타고난 성격, 그리고 종교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 엄태구가 롤모델로 꼽는 배우는 뜻밖에도 김혜자다. 그만큼 편안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뜻에서다.

"제 연기에 만족하는 작품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건 선배 배우들의 말이에요.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운다'고 말할 때, 저런 선생님들도 나처럼 힘들어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거든요."

/유벼리 기자 yoo.a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star bag

불법 도박 후 첫 방송 출연

방송인 **이수근**이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2년 만에 tvN 'SNL코리아' 시즌6 게스트로 방송에 복귀한다. 이수근의 'SNL코리아' 출연은 오는 16일 방송될 14회 메인 호스트인 김병만과의 인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이자 개그 콤비다. 'SNL 코리아 시즌6' 14회는 16일 오후 9시45분 방송된다.

팬미팅 1분 만에 전석 매진

배우 **지성**의 팬미팅 '2015 지성 팬미팅 기억해, 우리가 만난 시간'이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팬미팅은 오는 30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500석 규모로 팬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성은 팬미팅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심야식당' 주인공 첫 내한

영화 '심야식당' 주인공 코바야시 카오루가 내달 8일 첫 내한해 2박3일동안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코바야시 카오루는 드라마에서 영화까지 6년 동안 '심야식당'의 사연 있는 마스터로 열연했다. '심야식당'은 늦은 밤에 어느 도쿄의 한 식당에서 마스터와 손님들이 맛으로 엮어가는 인생을 다룬 영화로 내달 18일 국내 개봉한다.

'2015 희망TV SBS' 진행자 발탁

배우 **류수영**이 '2015 희망TV SBS' 진행을 맡았다. 류수영은 2012년과 2014년 봉사 활동을 떠난 바 있다. 그는 "2012년 마다가스카르 어린이들과 만난 후 오지 봉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희망TV SBS' MC를 맡게 된 만큼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하겠다"고 말했다. '2015 희망TV SBS'는 오는 14일, 15일 방송된다.

가사 외우고 떼창 즐겨볼까

뮤직 페스티벌 제대로 즐기려면

출연 아티스트 파악 후 노래 미리 숙지하기

동행과 아이템 맞추면 찾기 쉽고 기념사진도 굿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재즈부터 EDM, 록, 힙합 등 각종 장르의 뮤직 페스티벌이 음악 팬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재즈페스티벌,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등은 "드림팀"에 가까운 라인업으로 음악 팬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떼창 의 비결은 예습

페스티벌은 관객도 함께 즐기는 무대다. 출연 아티스트의 노래를 미리 알고 가면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다.

서울재즈페스티벌 2015는 오는 23~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첫 코리아& 어비 방콕 페이스 브리는 잭스 세르지오 멘데스, 미카, 그레고리 포터, 카디건스, 타미아 등의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코리아2015(이하 UMF)는 다음달 12, 13일 이틀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서문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데이비드 게타, 알레소, 나이프파티, 스크릴렉스, 로터 로빈슨, 스눕독 등 쟁쟁한 라인업은 물론 올해부터 라이브 스테이지 무대가 신설돼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7월 24~26일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서 열리는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역시 막강한 라인업을 갖췄다. 노엘 갤러거, 데드마우스, 이디오테잎, 오케이고, 푸파이터스, 혁오 등이 출연한다. 특히 푸 파이터스는 첫 내한공연으로 록 팬을 설레게 하고 있다. '베스트 오브 유(Best of you)', '올 마이 라이프(All my life)' 등의 히트곡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노엘 갤러거는 지난달 초 단독 내한공연을 성황리에 연지 약 석 달 만에 다시 한국 팬과 만나게 됐다.

DJ 데이비드 게타

갖춘 아이템과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중무장한 지난해 UMF 관객들 /울트라뮤직 코리아

◆ 아티스트 못지않은 준비

뮤직 페스티벌은 거의 대규모로 진행된다. 공연장 규모도 크고 관객도 많아 일행과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맞춤 아이템을 준비하면 서로를 금방 찾을 수 있고 기념사진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대부분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물은 허락되는 경우가 많다. '떼창'을 하다보면 목이 타기 마련이니 물은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UMF의 경우 내부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티머니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니 미리 챙겨가야 한다.

이 외에도 선크림, 선글라스, 우비, 휴지, 물티슈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음악에 온 몸을 맡기고 놀다보면 가방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가방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면 작은 백팩이나 크로스백 등이 적당하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페스티벌 현장에 들어서면 명당자리를 찾아야 한다. 적극적인 관객이라면 물론 무대와 가까운 자리가 좋지만, 뒤쪽에서 돗자리를 깔고 친구들과 함께 여유 있게 즐기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조성현기자 wrsh.m@metroseoul.co.kr

시크릿 '따로 또 같이' 아시아 활동

전원 대만 등서 팬미팅

솔로 전효성 日프로모션

4인조 걸그룹 시크릿이 해외 팬들과 만난다.

시크릿은 다음달 27, 28일 이틀 동안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팬미팅 '2015 시크릿 퍼스트 팬미팅 인 아시아(2015 SECRET 1st Fan Meeting in Asia)'를 진행한다고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시크릿 멤버가 모두 모이는 것은 지난해 8월 미니 5집 '시크릿 서머(SECRET SUMMER)' 활동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리드보컬 송지은은 지난해 솔로 앨범 '25'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tvN 드라마 '초인시대'에 출연하며 음악과 연기를 오가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선화는 지난달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TV여자신인연기상과 TV여자인기상 후보에 오른 상태. 징하나 역시 웹드라마 '점꿍전'을 통해 연기에 도전했다.

리더 전효성은 최근 솔로로 컴백해 '반해'로 활동 중이다. 전효성은 팬미팅에 앞서 다음달 중순 약 열흘 동안 일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속사는 "싱가포르, 대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다"며 "멤버들이 모두 개별 활동을 하고 있어 함께 뭉치는 일정을 잡기 힘들지만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서 각국의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황정민·강동원, 검사·사기꾼 변신

영화 '검사외전' 출연

배우 황정민, 강동원이 영화 '검사외전'(감독 이일형)의 출연을 확정했다.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 재욱(황정민)이 감옥에서 만난 사기꾼 치원(강동원)과 손잡고 누명을 벗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범죄오락영화다.

'신세계'의 의리파 보스 정청, '국제시장'의 아버지 덕수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황정민은 이번 영화에서 캐릭터에 내재된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군도: 민란의 시대', '두근두근 내 인생' 등으로 지난해 관객과 만났던 강동원은 코믹한 모습이 가미된 사기꾼 캐릭터로 변신한다.

영화는 '군도: 민란의 시대'의 조감독이었던 이일형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황정민, 강동원의 버디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드는 '검사외전'은 지난 9일 고사로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오는 16일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엔플라잉, 데뷔 앨범 한중일 동시 발매

신인 록밴드 엔플라잉이 오는 20일 데뷔 앨범 '기가 막혀'를 한국·중국·일본에서 동시에 발매한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20일 발표 예정인 데뷔 앨범은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버전이며, 일본어 버전은 오는 6월 중 발매 예정이다. 엔플라잉은 국내 데뷔에 앞서 일본에서 인디즈 싱글 '바스켓(BASKET)'과 '원 앤 온리(One and Only)'를 발매해 오리콘 인디즈 주간차트, 일본 타워레코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어 버전 앨범을 데뷔와 동시에 발매하는 것은 신인에겐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엔플라잉은 힙합, 펑크, 록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음악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화권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기자

엔플라잉(왼쪽부터 권광진, 김재현, 이승협, 차훈) /FNC엔터테인먼트

여진구 "오빠 호칭 신선합니다"

KBS2 새 금요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 첫 멜로 도전…별명은 '여진국'

배우 여진구가 '여진국'이란 별명을 얻었다.

여진구는 KBS2 새 금요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외모, 성적, 성격 등 모든 게 완벽한 고등학생 정재민 역을 맡았다. 뱀파이어 여학생 백마리(설현)와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다.

12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설현은 "처음 여진구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서 기대했다. 실제로도 도움을 많이 준다"며 "아역 때부터 봐서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남자답다"고 여진구를 소개했다.

함께 출연하는 이종현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진구가 '우리를 위해 현장에서 힘 써주는 스태프가 있다.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정말 잘 자랐구나 싶다. 진국이다"고 여진구의 됨됨이를 칭찬했다.

배우 여진구, 설현, 이종현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BS 금요미니시리즈 '오렌지 마말레이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여진구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정통 멜로드라마 주인공을 맡았다. 미성년자지만 굵은 목소리와 성숙한 외모로 누나들의 '오빠'로 불린다.

그는 이날 오빠라는 호칭에 대해 "정말 신선하다"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 오빠라고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누나 팬도 있지만 나를 오빠로 느꼈으면 그렇게 불러달라. 이제는 괜찮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성대인데 멜로 장르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오렌지 마말레이드' 정재민은 나와 비슷하다. 백마리를 보면서 첫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나 역시 아직 사랑이 낯설다. 풋풋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말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뱀파이어를 증오하는 18살 소년과 인간을 믿지 않는 뱀파이어 소녀의 사랑이야기다. 오는 15일 오후 10시35분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yo@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KBS2 '추적 60분'

오후 11시10분

유커 천만 시대는 올 것인가－조작가 여정의 덫' 편이 방송된다. 유커의 최대 수혜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유커 여행 실체를 파헤친다. 단체 여행을 온 유커들의 미심한 여행을 밀착 취재하던 중 본 월급이 없는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에 물건을 살 때마다 수수료로 돈을 받는다. 인두세를 내면서까지 유커를 유치하는 여행사 간 출혈 경쟁을 따라간다.

/정리=이유리기자 yun@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나 혼자 산다'에서 싱글 라이프를 공개한 김동완, 육중완, 강남과 배우 황석정이 출연해 자취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혼자 살기의 달인들이 소소한 싱글 라이프부터 서로에 대한 격한 폭로전까지 수위를 넘나드는 토크를 펼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이번 편 음식은 수제버거다. 수제버거 마니아 김상범 셰프와 함께 수제버거의 기준부터 즐기는 방법까지 수제버거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막내 전현무는 엄마가 해준 햄버거보다 군대에서 먹은 햄버거가 더 맛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

◆ JTBC '크라임씬 2'

오후 11시

여섯 번째 사건 '크루즈 살인사건'이 방송된다. 국내 초호화 크루즈에서 항해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불꽃놀이 행사 중 크루즈의 부선장이 창고에서 피를 흘린 채 시체로 발견된다. 크루즈를 둘러싼 음모와 부선장을 죽인 범인을 찾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5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뚜 뚜 보니하니 2 2030회 00 꼬마탐험 1 20 꼬마 참여자 참고 45 [illegible]	00 [illegible] 25 Real Fun Wo 30 [illegible] 한국어 50 Real Fun Wo 55 [illegible] 한국어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의 이웃	50 오늘부터 사랑해 (28회)	15 불금의 파이사 (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94회)	00 [illegible] 30 EBS 뉴스 50 세상에서	25 내 친구 [illegible] 35 Real Fun Wo 45 내 친구 [illegible] 50 두기 [illegible]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회)	30 변혁 동물 극장 판타 (12회) 55 비타민	35 왕구장 해져 (145회)	00 SBS 8 뉴스 55 [illegible]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5 Real Fun World 10 두기 [illegible] 20 스토리 [illegible] 30 공부의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20 다큐 오늘 50 EBS 스의 강사 특강
22시	00 [illegible] 3부작 3부 55 국민대통합 우리가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23회)	00 맨도롱 또똣 (1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3회)	45 극한 직업	00 [illegible]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illegible]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40 동행 [illegible]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우는 [illegible] (10회)	35 MBC 뉴스 24 55 [illegible]	15 나이트라인	05 [illegible] [illegible] 오치 그리즌 [illegible]	30 [illegible] 선생님 우리 선생님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50 냉장고를 부탁해 (26회) (재)		50 올리브쇼 2015 스페셜 (2회)			◆ 프로야구 (18:30) NC vs LG (SPO TV+ SPO TV) 두산 vs SK (SKY TV) 한화 vs 삼성 (KBS N SPORTS, SPO TV2) KT vs KIA (SBS SPORTS, [illegible] SPORTS) 넥센 vs 롯데 (MBC SPORTS+) ◆ 축구 FA컵 (19:30) 수원 JS컵 vs 강남 도림FC ([illegible]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2회) 55 JTBC 뉴스룸	40 [illegible] (93회) (재)	30 식사를 합시다 2 (7회)	00 천분의 속에 계단 [illegible]	30 식객2 김치전쟁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2회)	40 식사를 합시다 2 (8회)	00 수감 72시 (1회)		
21시	40 유자식 상팔자 (101회)	40 수요미식회 (15회)		00 <와일드 콘도네시아> 2부		
22시			00 올리브쇼 2015 (5회)	00 세계로 가는 [illegible] (18회)	00 [illegible]	
23시	00 크라임씬 2 (6회)	00 고교처세왕 (3회)	00 2115 [illegible] (17회)	00 <2차 세계대전 최고의 특전> [illegible] 영국 특수부대 VS 독일		
24시	40 지재용의 [illegible] (2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3회) (재)	00 오늘 뭐 먹지? 34 (42회)	00 세속적인 알래스카 (3회)	00 [illegible]	

강정호 2루타 쾅 '주전 굳히기'

강정호(28 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이제 주전 자리를 확실히 굳힌 모양새다.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4연전 첫 경기에 3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뽑아냈다.

전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시즌 2호 홈런과 결승타를 기록한 데 이은 2경기 연속 장타다. 또 7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0-1로 뒤진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제롬 윌리엄스의 시속 약 146㎞(91마일)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오른쪽을 찌르는 2루타를 날렸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4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투수 앞 땅볼로 잡혔고, 6회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8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날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 0.333(51타수 17안타)을 유지했다. 피츠버그는 4-3으로 이겼다.

2경기 연속 장타 추신수 멀티히트 11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3 텍사스 레인저스)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4번째 멀티 히트로 연속 안타 행진을 11로 늘렸다. 타율은 0.194(98타수 19안타)까지 올렸다.

추신수는 3-0으로 앞서간 2회 무사 3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7일 탬파베이전 이후 4경기 만에 나온 타점으로 시즌 타점은 13개가 됐다.

4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중전 안타로 출루해 후속 에드리안 벨트레의 우월 2점 홈런 때 홈을 밟았다. 1회, 5회, 7회 세 타석은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8-2로 완승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LPGA 3승 고지 오를 자 누구?

박인비-리디아 고·김세영 킹스밀 챔피언십서 격돌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나란히 2승을 거둔 박인비(27·KB금융그룹), 리디아 고(18·뉴질랜드), 김세영(22·미래에셋)이 3승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세 선수는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 리버코스(파71·6397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열린 11개의 LPGA 투어 대회 중 절반이 넘는 6개 대회의 우승을 나눠 가졌다. 최근 열린 3개 대회에서는 김세영(롯데 챔피언십), 리디아 고(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박인비(노스텍사스 슛아웃)가 차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박인비, 리디아 고, 김세영

주요 부문에서도 세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띈다. 상금 부문에서는 리디아 고가 91만5051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인비가 81만261달러, 김세영은 74만7252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리디아 고가 102점으로 선두를 자지하고 있다. 박인비(68점)가 2위, 김세영(87점)은 3위다.

지난주 LPGA 투어 대회가 없었던 만큼 컨디션을 조절한 어느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샷 대결이 대회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스완지시티, 아스널에 짜릿한 승리

기성용 선발 출전 73분 동안 활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아스널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기성용은 73분 동안 활약하며 팀의 승리에 힘을 더했다.

스완지시티는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을 1-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을 추가한 스완지시티는 7위 사우샘프턴(승점 57)을 승점 1로 바짝 추격했다. 아스널은 이날 패배로 리그 4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차(2점)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전반전에서 스완지시티는 아스널의 공세에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신 유효 슈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아스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후반전부터 아스널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후반 16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아스널의 슈팅이 골대 옆 그물을 강타했고 3분 뒤 결정적인 슈팅에 골키퍼 정면에 가면서 위기를 넘겼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와 아스널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스완지시티 기성용(오른쪽) /AP 뉴시스

이어 후반 33분에는 골대 정면에서 연거푸 3번의 슈팅 기회를 당했으나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결승골은 단 한 번의 역습에서 나왔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40분 몬테로가 아스널 진영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다 골문으로 크로스했고 이를 고미스가 헤딩으로 성공시켰다. 아스널 골키퍼가 고미스의 헤딩 볼을 걷어내긴 했지만 이 공이 골대 라인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골로 인정됐다.

기성용은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그는 스완지시티와 아스널이 0-0 균형을 이루던 후반 28분 고미스와 교체됐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승리로 리그 7위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는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정용호기자

'슈틸리케호' 내달 16일 월드컵 2차예선

'슈틸리케호'가 미얀마와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를 제3국인 태국에서 치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6월 16일 예정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미얀마와 한국의 경기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달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미얀마와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월드컵 2차 예선의 첫 경기를 치른다. 미얀마는 2011년 7월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2차 예선 오만전 도중 관중이 폭동을 일으켜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구자철과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

이번 2차 예선에서 홈 경기를 제3국에서 치르게 됐다.

한국과 미얀마의 역대 전적은 총 25전13승7무5패다. 가장 최근 경기는 2009년 4월 9일 열린 아시안컵 예선으로 한국이 4-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쿠웨이트,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최종예선 진출권은 2차 예선 각 조(A~H) 1위 8개국과 각 조 2위팀 중 상위 4개국 등 총 12개국에 주어진다. /정용호기자

삼성 채태인 1군 복귀

삼성 라이온즈 주전 1루수 채태인(33·사진)이 1군에 복귀했다.

퓨처스(2군)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채태인은 12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삼성은 내야수 김정혁과 외야수 이영욱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채태인은 지난해 12월 왼 무릎 추벽제거수술을 받았고 재활이 늦어져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무릎 부상을 털고 1군에 복귀해 대구 KIA 타이거즈전에 선발출전했지만 타격 중 옆구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다시 재활에 들어갔다. 최근 퓨처스리그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8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실전 훈련을 마무리했다. /김민준기자

날씨

5/13 수 해뜨는 시각 05:25 해지는 시각 19: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국립기상과학원 시험예보센터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8		5	4	2	
4	3			9		1		
		7	9		3			
5								1
			5		2	6		
		3		5			1	8
	5	8	6		1			
	1			2				

9							1	2
	1	8			9	3		
	2	4	1					
8				6	3		2	
				1				
	4		7	2				9
					4	2	6	
		2	6			8	7	
5	7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재 스도쿠 오리지널(제타 고든·트레크 통고 지음)

矮子里头拔将军 [ǎi · zi lǐ · tou bá jiāngjūn]

<보잘 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억지로 좋은 것을 고르다>

시사중국어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비자금으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것이고, 변호사를 하며 벌어들인 금액과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받은 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 자원일 겁니다.

홍 지사는 국회 대책비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받는 직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돈의 용처는 공금과 마찬가지이지만 국회 규정에 없어 딱히 홍 지사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기는 했지만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 지사는 이처럼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홍 지사의 해명을 듣고서 그의 도덕성을 비판합니다.

중국에는 '보잘 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억지로 좋은 것을 고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홍 지사가 깜짝 대선 후보도 된 정치인이란 비난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이 속담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정민기자 jeff.k@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KNN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들 진로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성적 뛰어나지 않아도 교육계서 입신양명

모친 이 남자 97년 2월 21일 오후 4시 반생

Q 선생님 안녕하세요? 때 아닌 감기가 기승을 부려 건강이 염려 되는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덕을 보려고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식이 어다음 사회에 나가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남에게 독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의 바람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교 2학년인데 공부를 하려는 마음은 있어서 책도 붙들고 앉아는 있으니 성적이 상위권이 아닙니다. 남보다 월등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하고 자식 속은 썩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성적이 상위권에 못 들어간다고 다소 걱정을 하시지만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상위권 대학보다는 사학이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모 속 태우는 일이 없이 덕을 많이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주구조는 갑목(甲木)사주가 유여 태어나 득령(자기의 계절을 맞이함)하고 목국(木局) 나무로 무리를 이룬 것인데 생시지(生時支)에 목(睦, 목묘)을 두었습니다. 태어난 달이 아직은 이른 봄이라 하지만 부족한 수(水)기를 필요로 하는데 꼴 부족으로 앞으로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태어난 시에 병화(丙火) 태양과 같은 따뜻함가 사주뿌리에 장생(長生) 새로 태어나 성장하는 추세를 두었으니 부모님이 오래 살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열년에 부모님이 자식 덕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의 사주를 다시 요약하면 목화통명(木火通明) 나무에 불이 붙어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춘다는 뜻으로 교육계 일에서 기반을 닦으면 평탄하게 이어집니다. 목화상관 木火傷官 이란 뜻으로 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관(傷官)인 화(火)가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주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드님 사주팔자에 있으어 교육계에서 입신양명 할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로서 주의 할 점은 생일지에 오화(午火)역마로 객지생활로 분주다망하여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보증서거나 하여 젊은 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특히 홍염살(紅艶殺)로 이성으로 인한 외척(外戚)이 두터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평생 보증서는 일, 투기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며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서책으로 자립하고 모아져서 큰돈이 되는 이치를 알도록만 한다면 자기분야에서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13일 (음 3월 25일) 사주스타

네이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체적 계획 돋보인 이유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알찬 네이버식 신속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돋보인다. 앞으로 관광·헬스케어, 바이오 등 정보기술(IT)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에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 대표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등과 연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스마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혁신센터는 현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도록 한 것이다. 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대기업이 정부에 눈치를 살피는 등 떠밀리 듯 혁신센터를 개설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성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는 탓에 유야무야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혁신센터펀드를 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아이디어의 편린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발표한 내용만 살펴보면 상당부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는 사업이 아주 구체적이다. 수십조원 투자 한다고 장기 계획을 세운 것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네이버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건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전국의 빅데이터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정보가 거래되는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와 함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50여개 빅데이터 관련 기관과 협업해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검색·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자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빅데이터 마켓도 구축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운영 중인 '데이터스토어' 등과 연계해 다양한 빅데이터의 유통과 중개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강원도는 센터 출범이 강원도 전략산업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컨대 관광객의 방문빈도와 기간, 동선, 업종별 최신 트렌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관광상품과 강원도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을 지원하는 등 확산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K-클라우드'(가칭)를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가 빅데이터 특화 전문 인력양성과 창업, 사업화 지원 멘토링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혁신센터가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성장 '디딤돌'로 자리 잡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중앙지검 내 자살시도와 구멍뚫린 관리

기자 수첩
이홍원
<사회부 기자>

사람이 자살할 때 대체 관리자는 뭘 하고 있었기에?

최근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후 이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게다가 해당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이었다.

당시 구치감(구속 피의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대기하는 장소) 안에는 다른 피의자 3명 등 4명이 같이 있었다. 해당 교도관들은 이후 2명을 원래 있던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다른 1명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실로 이동했다. 혼자 남은 피의자가 방치된 공백 시간 20분 사이 구치감 안 화장실로 들어가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련된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직무의 책임 위에는 인권을 우선한다며 법이 이를 못박아두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원칙적으로 최소 한 사람이 상주해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교정 당국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에서 초래됐다고 판단된다. 일단 자살 시도 시 이용될 수 있는 도구 소지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는 조금 세심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해당 교도관의 관리 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 기관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388명이다. 한 달에 7명꼴인 셈이다. 이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 관리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당시 해당 교정 당국은 늘 인력이 부족해 발생된 문제라며 결국은 예산부족 문제를 대두시킨다. 과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옳바른 해결책일까.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보완해야 한다.

위장 건강을 돕는 노란색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한방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음식의 다섯 가지 색을 다섯 장기와 연관해서 본다. 그 중 노란색을 띠는 음식은 단맛을 내며, 소화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상시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다거나 위장의 통증, 메스꺼움, 복부팽만 같은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노란색 음식이 도움이 된다.

단호박의 노란 빛깔은 식욕을 북돋운다. 특히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 병후에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두루 도움이 된다.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부드럽게 찐 후 간식으로 먹거나 죽을 만들어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며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당근도 위장 기능을 돕는 노란색 식품이다. 당근은 더부룩한 속을 가라앉히며 잦은 소화불량, 위염 등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도 좋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려면 기름을 써서 조리해야 좋다. 또한 좋은 영양소는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카레의 원료로 노란색을 띠는 강황도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위장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육류를 먹을 때 파인애플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된다.

늘 속이 편치 않고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지압으로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좋다. 중완혈은 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있는데, 손바닥 전체로 민다는 느낌으로 자극을 주면 소화불량, 위염, 위하수 등에 두루 도움이 된다. 손등에서 검지손가락의 뿌리 부분에 불룩 튀어나온 뼈의 바로 위에 있는 이간혈도 수시로 지압을 해주면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다.

Gov. Hong Joon-pyo, Falling into His Own Trap.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 Hong Joon-pyo repeated his denial of corruption allegations Monday, claiming that the illicit money in question was not a bribe but his wife's secret funds. Suspicions grew when the prosecution said Hong failed to explain the source of 120 million won in election funds. It also said Sunday that Hong and Sung's aide surnamed Yoon, who supposedly delivered the money, had met in June 2011, contrary to what the governor had been claiming all along. "As a ruling party floor leader, I would get 40 million won to 50 million won each month. I gave the leftover funds to my wife, who kept them in a bank safety deposit box," Hong said. He claimed that at the time, he had no knowledge about where the money came from and learned about the source only after the prosecution star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graft scandal. The critics say that Hong's careless words led him to his own trap.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크리스 킴) 강사

'자승자박' 홍준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언급했다. 금품 수수를 부인하기 위한 해명이었지만 도리어 자기 발목을 잡았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기탁금에 사용했다고 11일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3000만원가량을 여당 몫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를 언급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횡령을 고백하는 어이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그 만큼 궁지에 몰려 다급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PAGODA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은 깨어난다
처음처럼
100%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